

제목: 동물적 생존 집착 노동을 통한 인간 해방  
고분자공학과 192293 탁민경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 노동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강제된 행위로 인식된다. 이에 노동은 인간 본질 실현의 계기가 아닌 소외와 굴종의 과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 글은 동물적 생존에 극도로 집착하는 노동이 오히려 인간 해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자발성에 기인한 노동 효율성 제고, 다양한 시도를 통한 노동 산출물의 가치 향상, 협업을 통한 인간관계 발전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노동을 자본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의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게 해준다. 나아가 노동이 인간 억압의 기제가 아닌 자아실현과 연대의 원천임을 보임으로써 노동관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소외 없는 노동, 인간 본질 실현으로서의 노동을 향한 사회적 모색과 실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인간의 노동 효율은 자발성에서 비롯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 노동자가 생산 수단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노동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노동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된 행위로 여기곤 한다. 그 결과 근로 의욕을 상실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크게 떨어지고 인간소외 현상은 날로 심화된다. 반면 생존에 대한 절박한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노동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띤다.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노동은 높은 집중력과 몰입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실제 자발적 동기에 기반한 구글의 '20% 법칙'이 혁신적 제품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이를 방증한다. 또한 Mayo의 호손 실험 등 산업 심리학 연구들은 자발적 참여 집단의 생산성이 통제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입증한 바 있다. 요컨대 생존에 대한 절실한 열망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노동은 내재적 동기와 능동성을 기반으로 노동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인간의 잠재력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생존에 극도로 집착하는 노동은 독창적 산출물 창출을 추동함으로써 노동의 질적 가치를 높인다. 진정한 생존 욕구는 결코 단순 반복 노동으로 충족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몰두하는 노동자는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된다. 자신만의 독특한 노하우와 창의성을 발휘해 개성 넘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한다. 가령 생계형 창업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

해 각고의 노력 끝에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곤 한다. 이들에게 노동은 단순히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실인 동시에 세상에 대한 창조적 기여인 것이다. 실제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소상공인들의 사업 만족도와 지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완벽한 제품에 대한 강박으로 수많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성과를 일궈냈다. 그에게 있어 노동은 생존 그 이상의 궁극적 목적, 즉 최상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의미 있고 독창적인 노동 성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고취함으로써 노동 소외를 극복하는 토대가 된다.

셋째, 생존 집착 노동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연대와 화합의 인간관계를 형성케 한다. 생존이 걸린 극한 상황 속에서 개인은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고자 한다.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도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뤄 단결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가운데 이들 사이에는 강한 유대감과 결속력이 형성된다. 실제 마르크스는 공장에서의 협업 노동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연대를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노동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노동자들은 단결된 힘으로 이뤄낸다. 바로 이 같은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노동을 통한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자각케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동 노동을 통한 연대의 경험은 인간 본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 유인원들에게 있어 집단 사냥의 성공이 생존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개체들 간의 끈끈한 유대를 형성케 했듯이, 현대 노동자들에게도 협업의 산물은 물질적 풍요 그 이상의 것, 즉 동료애와 일체감을 선사한다.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확신케 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생존 집착 노동은 소외와 대립을 넘어 사회적 화합과 연대에 기여하는 진정한 실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글은 동물적 생존 집착 노동이 인간 해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발성에 입각한 노동 효율성 제고, 독창적 산출물 창출을 통한 노동 가치 향상, 협력 노동을 매개로 한 연대적 인간관계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논의 결과 생존 욕구가 추동하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협력적인 노동은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 본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노동을 자본주의적 착취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과도한 경쟁이나 불평등 등 집착 노동이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 또한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진정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되는 노동이 지닌 긍정적 속성과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발성과 창의성, 연대성에 기반한 노동이 보편화된다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의 새로운 경로가 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논의가 노동 소외 문제에 천착하고 해방적 노동을 고민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간 존엄성의 상실과 물화로 점철된 노동 현실을 직시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노동을 통한 주체적이고 연대적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은 결코 사소하거나 낭만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다.

#### 참조

Hawthorne Effect: Definition, How It Works, And How To Avoid It <Simply Psychology> , 2024.2.14(<<https://www.simplypsychology.org/hawthorne-effect.html>>접속일 : 2024.03.31

Everyone wants a culture of innovation. So what does it look like?<Google Cloud> , unknown <<https://cloud.google.com/executive-insights/everyone-wants-a-culture-of-innovation-report-what-does-it-look-like-report>>2024.03.31